

## ♥2021학년도 유아임용 최종 합격수기♥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유치원 임용고시 경상북도 응시 최종합격자입니다.

100명의 수험생이 있으면 100가지의 공부방법이 있습니다. 틀린 것은 없어요. 자신에게만 잘 맞으면 장땡입니다.^^ 제 합격수기를 참고하실 부분은 참고만 해주시고,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부분을 잘 취합해서 자신의 공부법에 맞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도움이 되고 싶어 자세하게 쓰다 보니 글이 두서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너그러히 양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소개

- 무경력 장수 합격생
- 졸업후 3년 올인 공부
- 2019년 응시 (컷에서 5점차로 떨어짐)
- 2019추시 응시(컷에서 5점차로 떨어짐)
- 2020 최불합(컷에서 +0.33, 최종에서 2점차로 떨어짐.)
- 2021 최종합격(컷에서 +1.33, 뒤집기 성공)
- 강사 변동 거의 없음(초수: 배 T, 재수부터 ~최합까지 : 민T)

#### \*-민쌤을 계속 선택한 이유?

- > 강의 자료가 풍부함
- >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 내용 구성
- > 문제풀이과정이 많이 어렵지만 그만큼 시험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음
- > 민쌤의 교재- 기출, 웹지도 구성이 제 자신에게 정말 잘 맞았음
- > 강의 시간이 다른 강사님에 비해 짧아 집중력이 짧은 내게 적합했음
- > 가격대가 좀 더 경제적으로 좋았음
- > 자료저장이 자유로워 좋았음
- 1차 고득점이 아닌 2차에서 뒤집은 사례

## 1. 왜 떨어졌는지 분석하자.

-저의 경우 초수때는 다른 친구들이 다 하는 공부이며, 그냥 이 시험에 붙으면 안정성이 보장되니까~ 하며 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절실하게, 끝까지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1차에서 4점차로 떨어졌습니다.-----> **꾸준히 공부를 하자. 규칙적인 생활하기, 무작정 열심히하기보단 꾸준.히 공부해야하기!**

-졸업후 1년 다시 공부를 하게 되었을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공부해야 하는지 힘들었어요. 이때 시험(19년도)은 단답형의 답들이 많이 출제되었던 시기였음에도 정확한 암기가 되지 않아 떨어졌습니다.(예: 답안은 '사전답사'인데, 저는 '사전 조사'로 작성했습니다.) 시험에 떨어졌을 때 시험지를 꼼꼼하게 분석했어요. 헷갈렸는지, 정확한 답안을 몰랐는지 등요..! ----> **정확한 암기를 하자!**

-추시를 쳤을때는 서술형을 정확히 연습하지 못했습니다. 답을 채점하는 분들이 납득되게 쓰려면 공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기출 답안을 토대로 답안 자체를 달달 외웠어요. 그러다보니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어도 서술형은 무난하게 다 정답처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기출에서 반복되었던 내용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출을 시험 끝까지 가져갔어요~! ---->**기출을 계속해서 보자, 서술답안을 반복해서 연습하자!**

## 2. 공부해야 할 것들을 명료화하기

### <유아임용 공부내용>

- 고시문 : 누리과정2019 목적, 목표, 각 영역별 내용-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외어야 하는 부분
- 해설서/놀이실행/놀이이해자료/놀이사례=해이실 : 2019 누리과정에 제시된 해설서입니다~. 상반기부터 꾸준히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자 읽으면 어려워서 저의 경우 스터디로 진행했습니다.
- 논술 : 시험에서 사례와 키워드가 드러나게 작성해야 하는 시험
- 총론 : 발달, 사상, 부모교육, 놀이, 평가, 교육과정, 교수방법, (주로 1~2까지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 각론 : 신체/의사소통/사회관계/예술경험/자연탐구
- 장학자료 : 교육부에서 교사들에게 제공한 각론에 관련된 자료(예: 성폭력교육자료, 안전교육자료, 세계시민 교육 자료 등.. -> 저의 경우 민쌤 기본서에 이미 장학자료가 많이 수록되어 이 부분을 많이 숙지하고자 했습니다)
- 법 : 유아교육법/아동복지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교육기본법/교육공무원법/어린이놀이시설관련법/성폭력 관련 법 등~~> 법의 경우 빈칸으로 출제될 경우가 많아요. 키워드를 꾸준히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스터디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 기출공부 : 상반기부터 강사 강의를 밀리지 않고 듣기를 추천합니다. 그 이후에는 자신의 진도와 함께 더불어 기출을 계속해서 보시길 추천합니다^^

위에서 정리하였듯 임용고시는 공부해야 할 것들이 정말 방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강사님들의 자료도 정말 많고, 모든 것을 정말 잘 암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본인에게 맞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강사 선생님들의 자료를 다 보는데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따라서, 제게 맞는 한 강사님의 커리 내용만이라도 정확하게 꼭꼭 암기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임용고시의 기출내용들을 분석 하다보면 기본적으로 기출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반복되며, 이 시험은 기본을 틀리지 않고, 실수를 하지 않으면 무난히 합격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 외에 고득점을 하시고 싶다면 다른 강의 강사님들의 자료를 보거나, 모의고사 까지 다 섭렵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자신에게 맞는 역량만큼 충분히 잘 소화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 3. 1차 공부방법

### ● 진도밀리지 않기

-기본적으로는 강사님의 커리에 잘 따라가려고 했어요.

-저는 인강을 듣는 사람이었기에, 직강생처럼 진도를 밀리지 않고 듣고자 했습니다!!

-진도를 밀리지 않고 듣는것만해도 정말 반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진도가 밀리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에 소화해야 할 공부내용을 꼭꼭 씹어서 소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암기는 초반부터 하면 좋다!

-상반기에 암기보다 이해라고 하지요. 그렇지만 암기는 처음부터 하면 손해가 없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키워드들을 미리 암기해서 어차피 까먹는다 한들, 다시 반복할거니까요! 그리고 외어본 사람은 이제 외우려고 하는 사람보다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슬스터디를 했습니다^^

### ● 스터디는 나를 알고 시작하기!

Q. 혼자서 나를 잘 통제하는가? 함께 공부하는 상대가 있으면 더 잘 할 수 있을까?

Q. 혼자서 암기가 잘되는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 더 놓치지 않고 잘할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혼자서 반복해서 쓰고 암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면 암기가 자연스럽게 되는 스타일이었어요~ 또, 혼자 공부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온라인으로 스터디를 하게 되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임하게 되어 공부 루틴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 제가 했던 스터디

① 하루 공부 인증 스터디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8시부터 9시까지 그날 할 공부 계획표를 올리고, 밤 12시까지 그날 완료된 플래너와 스태워치를 찍어서 인증하는 스터디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규칙적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

있어요. 상반기부터 시험전날까지 꾸준히 했던 스터디입니다.

② 놀이실행/놀이이해자료 스터디 : 페이지와 목차를 정해서 월~토까지 정해진 분량을 읽고, 문제를 냈습니다. 문제를 내고 각 스터디원이 냈던 문제에 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용을 익히려 했습니다. 상반기부터 문제풀이 전까지 꾸준히 했던 스터디입니다.

SKT 9:03
📶 🔋 🔒

✕
놀이 이해·실행 자료

#놀이실행자료제1부

1.(p.21)  
(ㄱ)을 정한다.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모든 부분을 한꺼번에 변화시키기는 어렵다. 기관마다 원장(원감), 교사, 유아, 학부모와의 관계 및 환경과 자료 등이 준비된 정도가 다르며 이에 따라 변화의 노력 정도나 필요 시간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교사와 원장(원감)은 기관이나 학급의 상황과 요구를 고려하여 변화의 (ㄱ)을 결정한다.

2.(p.21)  
(ㄱ.\_\_\_\_)을 찾아본다.  
->준비가 미흡한 부분을 파악하고 변화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에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ㄴ)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각 실행계획의 주된 (ㄷ)가 누구인지 업무를 분장함으로써 계획의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3.(p.21)  
(ㄱ)하며 돌아보고 (ㄴ)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본다.  
->이 단계에서는 수립한 계획을 실제로 실천하면서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우선순위, 실천방안, 교육과정 운영 기간, 책임자 등에 변수가 생긴다면 이를 반영하여 앞 단계로 돌아가 계획을 새롭게 변경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다시 거칠 수 있다.

+
🔄 댓글을 남겨주세요.
😊

≡
○
<

☞ 놀이이해/실행 자료 스터디 예입니다!

☞ 고시문 스터디 예입니다! 저는 타이핑으로 매일 인증했습니다.

③ 고시문 스터디 : 월~토/ 매일 외운 내용을 백지쓰거나, 타이핑 한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 인증했습니다. 강제적으로 쓰다보니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었습니다~! 상반기부터 시험전날까지 꾸준히 했던 스터디입니다.

④ 논술스터디 : 함께 민생 논술을 수강한 스터디원들과 하나의 문제를 함께 쓰고 첨삭해주었습니다. 주1회로 진행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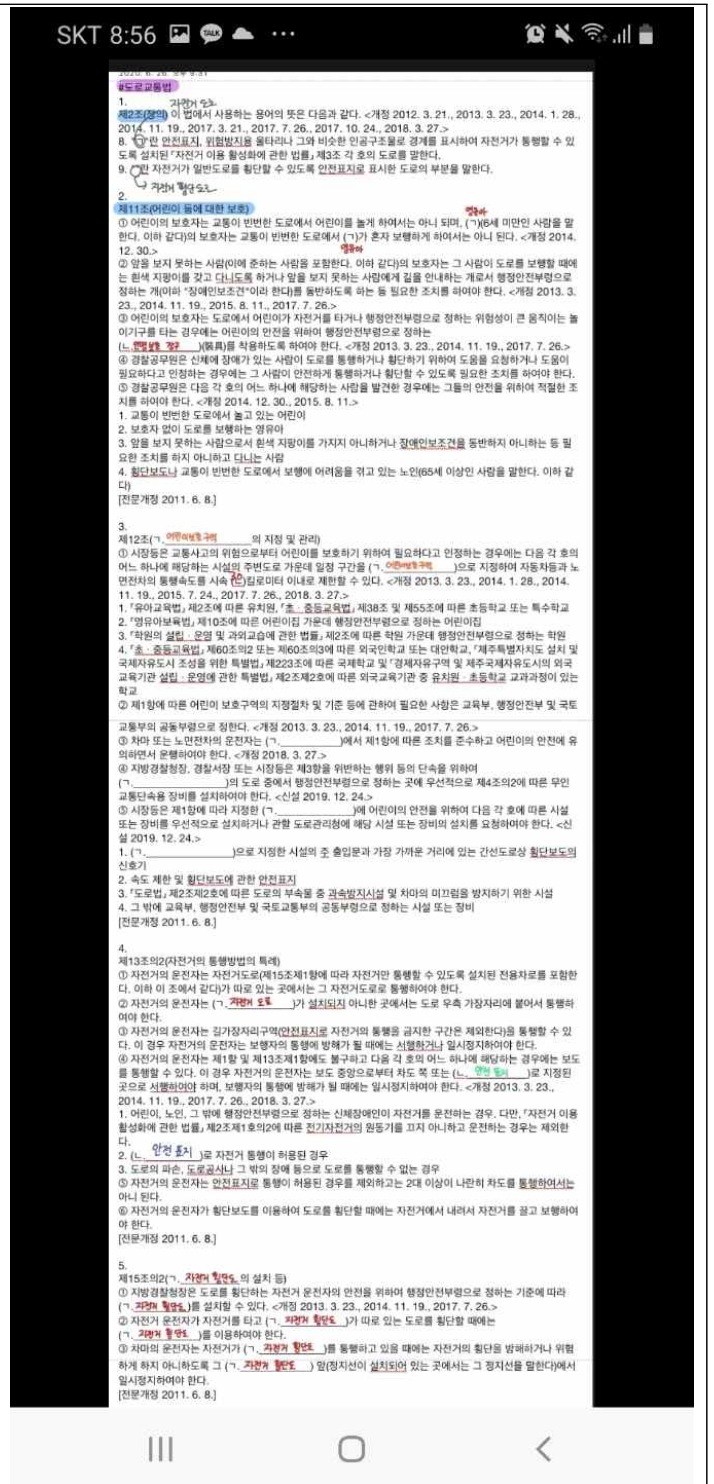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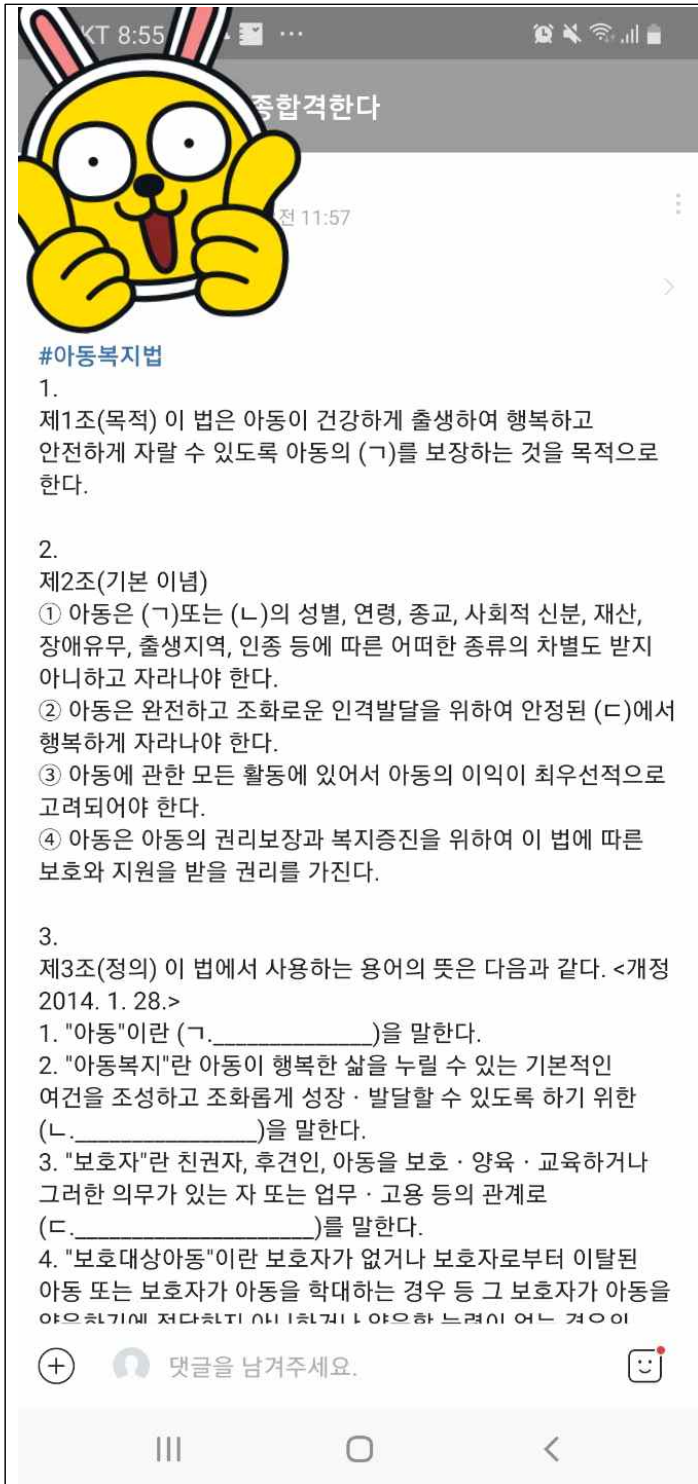
였으며, 한 주제 당 스터디원들(4명)의 글들을 보다보니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터디 첨삭의 기준은 - 답안을 보고 채점했습니다. 키워드가 드러났는지, 문장구조가 명확하게 잘 보이는지 이 2가지로 첨삭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첨삭을 받는것도 좋지만 제일 도움이 된 것은 다른 스터디원의 논술내용을 성심성의껏 첨삭할 때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논술 점수도 점차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초수때는 부끄럽지만 13점이었지만 최합한 시험기준 19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상반기부터 시험전날까지 꾸준히 했던 스터디입니다.

⑤ **장학자료 스터디** : 19년도 기준 '사전답사', '견학동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온 문제 경향을 보고 장학자료 역시 정확하게 읽고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일별로 - 안전/성폭력/유괴예방/그 외 내용 등을 범주화하고, 해당하는 카테고리(예: 안전)의 장학자료를 읽었습니다. 읽고 문제를 내고, 답안을 공유했어요. 그렇지만 조금은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도 느껴서 각론 시작때부터는 하지 않았습다.

⑥ **법 스터디** : 법의 경우에도 넓고 답안이 명확하게 채점되다보니,, 초반부터 기본적인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장특법 등을 빈칸을 내고 답을 썼습니다. 상반기부터 시험 전날까지 꾸준히 했던 스터디입니다.

<p>법스터디 문제 출제한 화면입니다.</p> <p>이런 문제들을 하루에 총 5문제씩 정해진시간(예: 점심 12시까지) 올렸고, 정해진 시간(예: 자정 12시)까지 스터디원들이 낸 문제들을 풀었습니다.</p>	<p>정해진 시간(예: 자정: 12시)까지 스터디 문제를 풀고 인증한 화면입니다. 다른 스터디 원들이 낸 문제를 푸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스스로 낸 문제를 집중해서 보고 다시 푸는 과정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p> <p>따라서 스터디 할 때 문제 내는 것을 그냥 낸다고 생각하기 보다 내가 낸 문제를 다 알아간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p>
--	---





● 주별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했어요! (인강-복습-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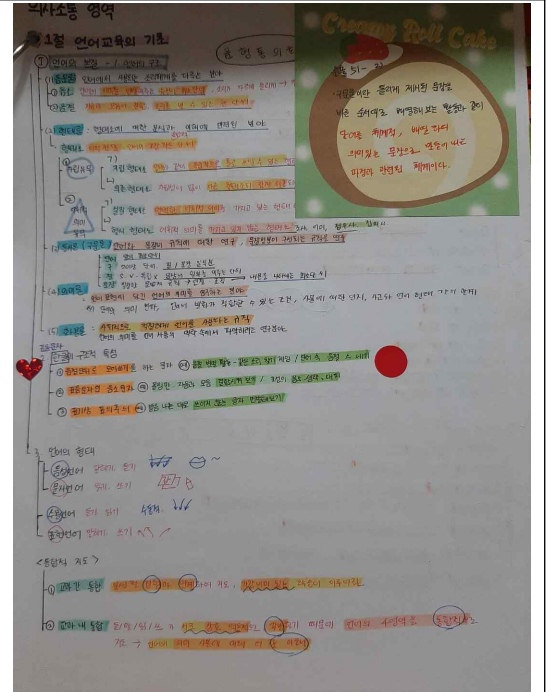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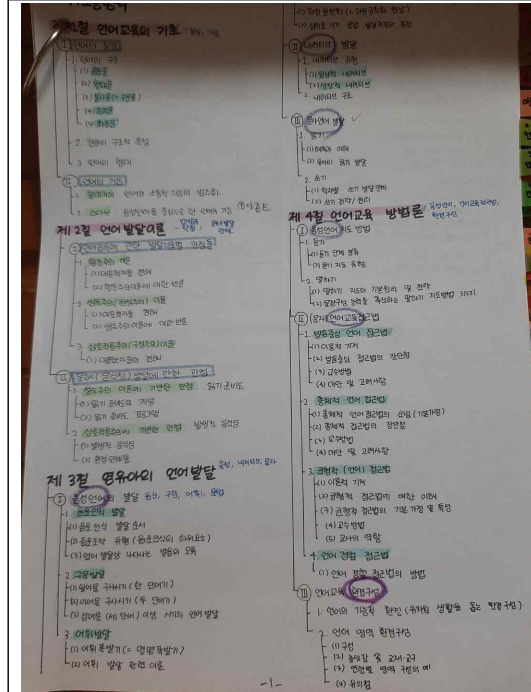
▶ 직강을 다닌다고 가정하고, 진도를 밀리지 않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인강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듣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시간상관없이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인강을 듣고 나면 민쌤과 함께 훑은 기본서 내용을 정독 3번했습니다. 정독한 뒤에는 구조도를 그리며 그날 배운 공부는 암기하려 했습니다. 암기할 때 효과가 되었던 것은 백지쓰기와 구술스터디 입니다. 스스로가 강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가상의 학습자에게 알려주면서 백지를 쓰거나,(판서처럼) 구술을 하다보면 공부한 내용이 체화되었습니다.

임용의 첫 시작,  
충론!  
(1월~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기출을 시작했어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쌤 총론 강의 진도내용과 해당하는 기출된 부분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먼저 강의를 듣고, 문제의 서술방식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민쌤의 기출강의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기출 답안을 외우기보다는 어떤식으로 출제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피시길 바랍니다!</li> </ul> </li> <li>● <b>주 1회 논술을 썼습니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의 경우 초수생이 아니다보니 1차 지식은 조금씩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부터 저처럼 공부경험이 있으신 분들과 함께 논술 스터디를 했어요. 총 5명이었습니다. 주별로 문제를 스터디원들이 내고, 함께 쓴 논술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까지 각 스터디원들의 논술을 첨삭했습니다.</li> </ul> </li> </ul> <p>--첨삭할 때 정말 성심성의껏 해드리려 했어요. 논술이 자신이 없다보니 잘 쓰시는 선생님들의 글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키워드를 어떻게 배열했는가? 문장을 어떻게 명료하게 쓸까? 그러고 나서 다시 자신의 글을 보면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문장이 많이 길어서 조금 부끄러웠는데, 시험이 다가오면서 선생님들이 많이 늘었다고 칭찬해주셨어요! 정말 뿌듯하면서도 벅찼답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진정성 있게 보다보면 자신의 실력이 일취월장한 것을 알 수 있어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고시문, 놀이실행/이해자료, 법은 이때부터 했어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는 억지로 암기하는 것을 싫어해요. 임용이 장기전이지만 이때부터 외어두어야 나중에 좀 수월할 것 같아서 고시문은 1~2월부터 외었습니다. 정확하게 기계처럼 암기할 부분은 미리 하는 것이 제게 잘 맞더라구요..! 또, 해설서/놀이이해/실행 자료의 경우에도 미리 익숙해지는 것이 나중에 덜 벅찰 것 같아서 이때부터 익혔습니다. 법 역시 유아교육법/아동복지법/장특법/교육기본법/과 같은 내용들을 가볍게 훑어봤어요. 개정될 부분이 있다 우려하시는 분들은 하반기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li> </ul> </li> </ul>
<p>이제 방대해진다. 각론공부시작! (3월~6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주별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했어요! (인강-복습-인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론 공부에 설명한 부분과 같습니다. 이때 의사소통, 사회관계는 헬입니다., 다른 부분도 정말 암기 할 부분이 많지만 언어와 사회는 많이들 외울부분이 많아 힘들어하세요. 이때 그냥 외워버려요. 그냥 두 번다시 볼일 없게 암기해두면, 까먹지만 수월합니다. 다시외우기! 한 번 외어본 사람이 두 번째 외우면 더 암기가 잘됩니다. 저는 암기하시길 추천합니다!!</li> </ul> </li> <li>● <b>기출을 진도에 맞춰 공부했어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론에 제시된 부분과 같습니다.</li> </ul> </li> <li>● <b>장학자료를 보기 시작했어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론의 내용은 정말 방대해요. 이때 슬럼프가 많이 오고 하죠.. 그럴때! 카페에 가서 장학자료를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면서 내가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읽어둔다고 생각하면 좀 더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터디를 했었으나 저는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놓치지 않고 본다면 도움이 되겠지요?</li> </ul> </li> <li>● <b>논술은 여전히 주 1회로 꾸준히 했습니다.</b></li> <li>● <b>벅차다면 스터디는 stop하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이되면서 놀이이해/해설서/실행자료 보기 벅찼습니다. 한번 다 읽어보아서 이때부터는 스터디는 멈추고 스스로 혼자 익혔습니다.</li> </ul> </li> </ul>
<p>총+각론을 다 했으니 본격적인 임용공부의 꽃, 문제풀이 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문제풀이 절대 밀리지 않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 풀이 양 정말 방대해요.. 그래서 절대 진도 밀리지 않고자 했지만, 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것으로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민쌤 문풀을 미리 예습에</li> </ul> </li> </ul>

맞춰 다 풀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듣다보면 이때부터 뭔가 아! 하게 됩니다. 헛갈리는 부분을 정말 정교하게 잘 알려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한글파일로 정리했습니다. 해당하는 지문을 다시 짚어서 복습했어요. 미련해보여도 저는 이 방식이 오개념도 잡고, 암기하게 되어서 정리했습니다. 모든 내용을 정리한 것은 아니고 틀리고, 헛갈린 부분을 주로 정리했어요. 정리한 뒤에는 웹지도에 오려 붙였습니다^^

● 암기를 씹어먹자!



(7월~8월/9월)

민쌤 기본서 - 각론에 '의사소통' 목차입니다. 목차를 보면서 고리를 만들었어요. 상위 목차는 무엇인지, 그 아래의 하위목차를 유심히 봤습니다.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화용론~음운론~, 다음으로는 언어발달과 관련된 학자들의 이론이 나오네? 이런식으로 스스로 읽었어요!

목차를 먼저 작성했다면 기본서를 기준으로 중요한 키워드와 내용들을 구조화해서 단권화했습니다. 보라색 부분은 '상위개념' 그 아래 파란색 형광펜부분은 '중요한 키워드' 노란색형광펜과 빨간 글씨는 서술을 쓸 때 키워드로 작성했습니다. 모든 조사를 다 쓰기 보다는 핵심 단어만 나열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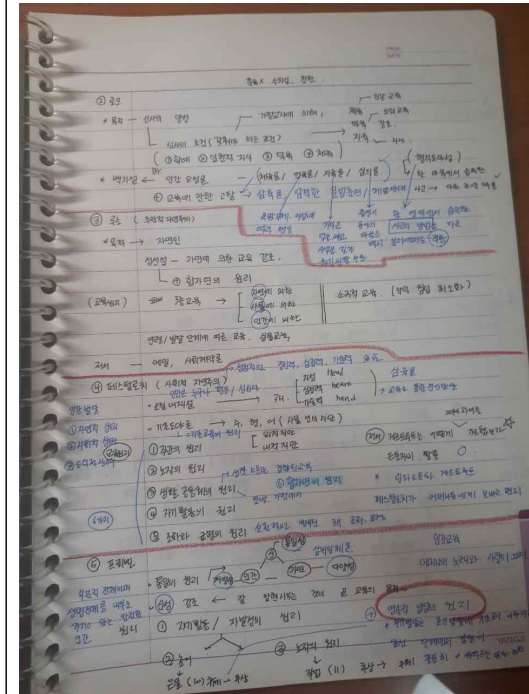
\*\* 포스트잇에 적혀진 것은 문제풀이에서 틀린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붙인 것입니다.

\*\*빨간색 스티커 -하트의 경우에는 스스로 중요하고 다시 봐야겠다고 한 부분을, 동그라미 스티커는 정확하게 외어지지 않은 부분을 체크 한 것입니다.

▶ 웹지도는 정말 구조화하기 좋은 교재예요. 그러나 웹지도만 보시기 보다는 기본서와 함께 병행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민쌤 기본서를 기준으로 단권화 했습니다. 단권화를 해서 제가 만든 자료만 본건 아니고, 웹지도도 씹어먹을 듯 봤어요. 형광펜으로 칠하면서 암기하고, 또는 웹지도 구성자체를 백지쓰기 했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모르는 부분이 어디이지?'라고 묻는게 중요합니다. '아직도 이것밖에 암기가 안

	<p>되었네’가 아니라 ‘내가 이부분이 정말 안 외어지는구나.’하고 반복해보세요. 그러다보면 정말 모르는 것이 줄고, 아는 것이 많아진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안외어지는 부분은 스티커로 표시해두었습니다!(외어졌다면 스티커를 제거했어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기출 답안을 필사하자.--적극 추천!</b></li> <li>▶ 그냥 생각없이 필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술형을 대비하고 안전하게 다 맞추고 싶다면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해 문제를 내기 위한 지침서가 됩니다. 이제껏 나온 문제의 내용을 토대로 출제자들이 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살펴보면 반복되는 부분에서 서술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이때부터는 기출을 강의로 듣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분석하셔야 합니다. 먼저 기출에서 제시된 문제의 서술방식을 살펴보세요. 무엇을 묻는지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기출의 서술방식을 보시길 바랍니다. 또, 서술은 채점이 되려면 사례와 키워드 두 개가 잘드러나야 합니다. 따라서 강사님이 제시한 기출 답안을 꼼꼼히 분석해보세요. 그 문장방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추천하는 방법은, 강사 답안을 필사해보세요. 필사한 문장을 덮어두고 다시 기출의 문제를 토대로 자신이 서술을 써보세요. 자신의 서술을 강사답안과 비교해서 놓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저는 이 방식을 시험 모의고사 시즌까지 계속 했어요.</li> <li>● <b>주 1회 논술스터디는 그대로 했습니다.</b></li> <li>● <b>법스터디는 꾸준히 했습니다.</b></li> </ul>		
<p>1차 시험장에서 발휘하기, 모의고사 시즌 (9월~11월)</p> <p>● <b>**막대 색이 진해지듯, 시험에 가까울수록 밀도 있는 공부가 필요해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모의고사는 역량에 맞춰 풀었어요!</b></li> <li>▶ 고득점을 위해서 여러 강사분의 모고를 푸시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 했지만 안되더라구요..! 여러 강사분의 모고를 푸는것도 좋지만 그게 안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4수여도 민쌤 모고만 했어요. 이 부분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개인의 역량껏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li> <li>● <b>모고 성적은 신경 안쓰고 내가 아는지 신경쓰기</b></li> <li>▶ 저는 모고 고득점 해본적은 없어요. 많이 부족했어요. 30점대 나올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냥 틀린 부분은 왜 틀렸는지 분석했어요.</li> <li>● <b>여전히 기출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데리고 감!!</b></li> <li>▶ 위에 제시된 기출 공부방법과 같습니다^^</li> <li>● <b>주 1회 논술스터디 그대로 했습니다.</b></li> <li>● <b>백지쓰기는 꾸준히 했습니다.</b></li> </ul> <table border="1" data-bbox="395 1473 1490 1720"> <tr> <td data-bbox="395 1473 943 1720"></td> <td data-bbox="943 1473 1490 1720"> <p>백지는 처음에 쓰면 막막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때 백지쓰기 사진은 시험 직전에 제가 정리한 부분입니다. 스스로 생각되는 내용들을 그대로 적고, 빠트린 부분은 색깔펜으로 다시 채우는 식으로 공부했어요^^</p> </td> </tr> </table>		<p>백지는 처음에 쓰면 막막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때 백지쓰기 사진은 시험 직전에 제가 정리한 부분입니다. 스스로 생각되는 내용들을 그대로 적고, 빠트린 부분은 색깔펜으로 다시 채우는 식으로 공부했어요^^</p>
	<p>백지는 처음에 쓰면 막막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때 백지쓰기 사진은 시험 직전에 제가 정리한 부분입니다. 스스로 생각되는 내용들을 그대로 적고, 빠트린 부분은 색깔펜으로 다시 채우는 식으로 공부했어요^^</p>		





마무리 \* 정리

● 목차부터 외우는 것우고 기본 틀대로 암기하는 것이 도움 되었습니다.

● 멘탈이 제일 중요합니다.

▶ 시험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5점차로 떨어지니 제 자신이 많이 미워지더라구요.. 그럴지 만, 그럴수록 잘못된 원인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취약점을 인 정하고 마주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주하다보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구요! 그 결과 나머지 시험에서 1차는 계속 붙었어요.(고득점은 아니지만..!) 또, 유튜브로 쓴소리를 찾아 들었어요^^ 민쌤의 따뜻한 응원과 더불어서 들어서 좋았습니다. 또 내가 공부하는 과정은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란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공부를 해야 진정으로 결과가 올 것 같았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상황 감사하기

\*나는 이래서 불행해 라기 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기

\*아기가 일어서서 걸을 때까지 수천번 넘어지는 것처럼 지금의 힘듦과 좌절이 좋은 교 사로 갈 수 있음을 기억하기

\*아픔을 경험한 자가 할 수 있는 공감은 최고의 가르침이 될 수 있다!

\*내 말 한마디로 아이들의 미래가 싹틀 수 있음을 기억하기.

\*좋은 배움을 주기위해선 나 역시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하기

\*내가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 친구/가족/선배들에게 합격으로 선물드리고 싶 음을 기억하기

\*매일 감사한 점 3가지 써보기

\*합격하고 나서 하고싶은 버킷리스트 작성해보기

>>추천합니다! 이런것들로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 매일 계속 공부하는 건 불가능

▶ 매일 공부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공부를 하다보면 약속이 생기거나, 집에 서 공부 하시다보면 가족간의 갈등, 여러 가지 형편 등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 나 일주일에 적어도 주 5~6회는 정말 성심성의껏 공부하는게 중요해요. 이 시험은 누

	<p>가 빠르게 하는것보단,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쉬는 날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토요일, 일요일은 느슨하게 계획을 잡고 공부했습니다. 집이 바다와 가까워서 바다를 보러가거나, 카페에 가서 좋아하는 음료를 마시면서 힐링했어요. 주마다 쉬는 휴식을 줘야 꾸준히 공부를 이어서 할 수 있었어요.</p> <p>● 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께 꿀팁?</p> <p>▶ 먼저 직장처럼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이다보니 도서관이나 독서실에 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게 되었는데 집이다 보면 편한옷을 입어서 좋기도 하지만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하는 것은 <b>공부를 직장처럼 대하는 것</b>입니다! 저는 일어나서 외출복? 입고 선크림도 바르고 공부했습니다.. 편안함과 공부해야 하는 <b>상황을 분리</b>를 해야 몰입할 수 있어서요. 또 유튜버 들 중 공시생이나 공부하시는 분들의 라이브 방송을 틀어놓고 공부하기도 했습니다~!</p> <p>● 공부시간은 중요한가? &amp; 하루 일과 구성</p> <p>▶ 공부시간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부시간 보다는 할당량을 채우다보면 어쩔 수 없이 8~9시간은 훌쩍 갑니다... 처음부터 시간을 채우고 목표를 너무 과하게 잡으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p> <p>▶ 하루일과 구성&gt; 저는 일어나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책상에 앉을때까지는 : 고시문~ 해설서/놀이실행/이해 자료/법&gt;을 완료하려 했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어요.</li> <li>2. 점심시간부터는 : 강의 다 듣기~를 목표로 했어요.&gt; 오후시간에는 졸리더라고요. 이때는 낮잠 1시간은 잤습니다.. 졸면서 공부하면 비효율적이라서 자고 시작하는게 맞더라고요!</li> <li>3. 오후시간(저녁시간 전) : 강의 내용 복습하기 &gt; 기본서 정독 반복하기, 암기하기 &gt;&gt;이렇게만해도,, 7~8시간은 했습니다.</li> <li>4. 밤 : 백지쓰기 (인출하기), 법스터디/ 해이실 스터디 답안 올리기, 하루 총 복습하기</li> </ol>
--	--

## ♥2차 공부 tip!♥

1차 공부 팁을 도움이 되고자 세세하게 작성하다보니 이렇게 되었네요^^ 저는 우선 1차 시험을 치고나서 드는 감정은.. ‘망했다!’였습니다. 1차에서 떨어지던 시절에는 될 듯 안될 듯 했는데, 이번해의 경우에는 ‘나는 정말 광탈이구나..’ 였어요. 그래서 어리석게도 이번 시험에서도 1차 합격자 발표때까지 2차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 그럼에도 뒤집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 최불합 경험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1차 합격자 발표이후 2차 준비기간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부디 저처럼 힘들지 않으려면 1차 발표나기 전부터 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먼저, 2차 시험은 지역별로 배점과 유형이 다릅니다. 자신이 지원한 지역의 유형을 잘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먼저 경북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 면접(40 배점)

2. 과정안 (20 배점)

3. 수업실연 (40 배점)입니다. 총 100점 만점으로 되지요. 저는 컷에서 얼마 차이 안나는 점수로 붙어서 살얼음판을 건너는 기분으로 준비했어요.. 그럼에도 뒤집었으니 컷에서 얼마 차이 안나니까, 또는 1차 발표 이후 난 준비 안했으니까 나는 망했어... 어려울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 열심히 하시면 뒤집을 수 있어요!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차는 무한 반복이 답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냥 생각없이 무한 반복하기 보다 자신을 마주하고 스스로 고치려고 하는 태도가 제일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드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 영상에 대해 스스로 냉정하게 보셔야 해요. 내 얼굴을 보면 어색한 발성, 더듬거리는 말, 어수선했던 시선이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발견했으면 고쳐서

다시 실연을 꼭 해보세요! 그렇게 매일 하루를 채우신다면 실력이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 ♥ 면접 ti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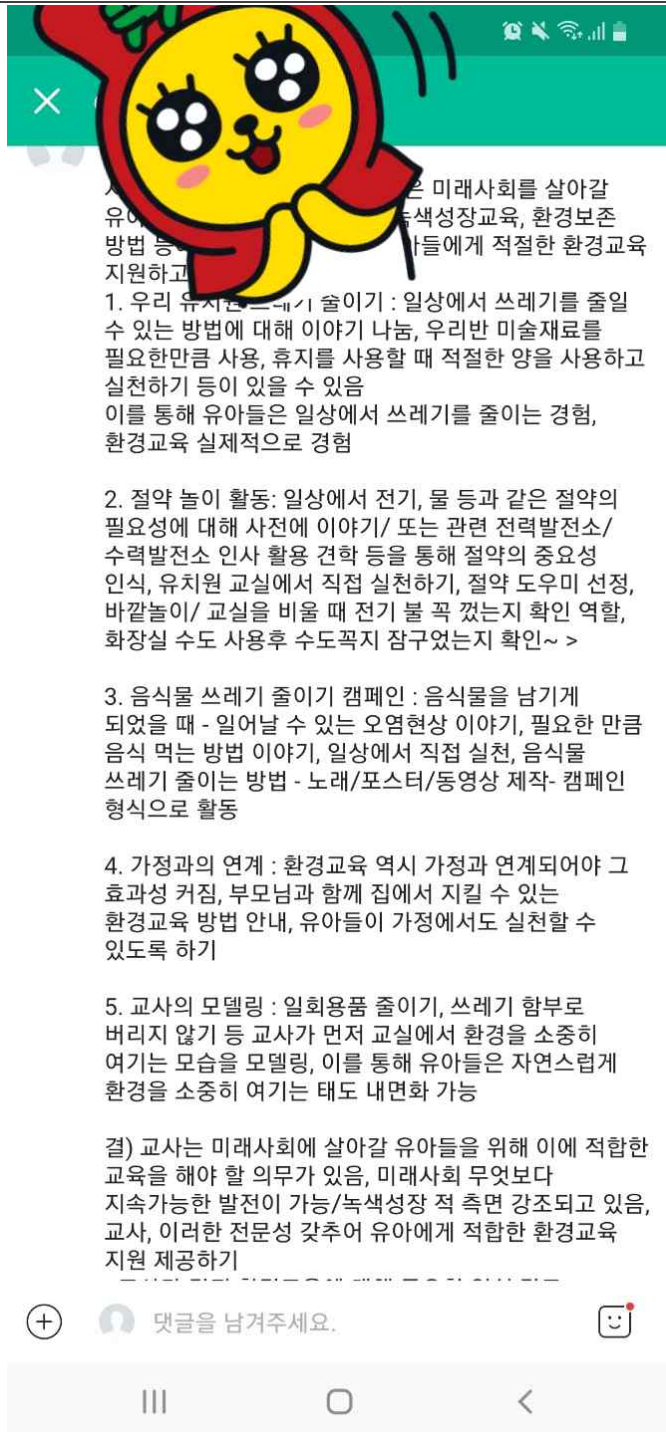
- 면접은 결국 1차 공부의 반복이다. 아는 게 있어야 말로 나온다.

--->1차 공부 시 했던 구술 스터디가 여기서 발휘되었던 것 같아요^^

- ▶ 면접은 논술을 말로 하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지역별로 문제 개수와 시간이 다르므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평가원 지역에 응시하여 다른 지역의 평가원 선생님들과 스터디를 했습니다.

구상형 문제	즉답형 문제
<p>-논술처럼 문제에서 <b>답을 찾아서 가짓수를 채워</b> 답하는 문제입니다.</p> <p>-구상형 문제의 경우 정해진 시간 동안 답변을 구성할 시간이 있습니다. ‘구상시간’이라고 합니다.</p> <p>-구상시간 동안 <b>실전처럼 연습하고 실전시간 만큼 답하는 것</b>을 추천드립니다.</p> <p>-구상형은 문제가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추세라고 봐서, 저희 스터디 선생님들과 함께 <b>논술문제를 기준으로 구상형 면접을 연습</b>했어요.(예: 민생의 논술 책으로 연습했는데 효과가 많았습니다~!!)</p> <p>-<b>답변은 두괄식이 좋습니다.</b> ~입니다. 왜냐하면~ 때문입니다. 따라서 ~ 합니다. 이렇게요.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내 답안이 채점하는 면접관에게 명확히 들려야 채점이 됩니다!!</p> <p>-<b>목소리와 발음, 발성도 신경</b>썼습니다. 2차는 사람대 사람이다 보니 목소리가 또렷하고 분명하다면 좀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볼펜 물고 혀도 풀고, 발음 연습도 했습니다.</p> <p>-목소리의 경우 유튜브로 스피치를 봤어요. 민생 강의 중 스피치 특강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목소리를 낼 때 그냥 평소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좀 더 전문성 있는 목소리를 내려고 연습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p> <p>-안녕하십니까~부터 들어오는 자세, 눈빛, 입모양 모두 봤습니다. 연습하실 때 면접관이라 생각하고 체크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거예요^^</p> <p>-유아교육 관련이 아니더라도 <b>주변 가족, 친구, 지인에게 피드백 받아보는것도</b> 좋아요. 어색한 부분을 오히려 잘 집어주실때가 있습니다. 2차는 수업실연, 면접 모두 남들 앞에서 많이 해보는게 좋습니다.</p>	<p>-<b>즉답형 문제는 문제를 열고 즉석에서 답하는 문제입니다.</b></p> <p>-즉답형도 문제에서 답안 구성을 짰어요. ~입니다.~왜냐하면 ~입니다. 따라서~입니다. 이렇게요.</p> <p>-즉답형 스터디는 따로 더 했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당 즉답문제 10개를 올리고, 한 큐에 녹음해서 올렸습니다. (일주일에 1회, 단기적으로 진행.. 총 60개 즉답 연습 가능)</p> <p>-즉답 역시 반복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b>계속 내뱉어 보면</b> 그냥 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p> <p>-단, 자신이 말한 <b>내용을 녹음하고 적어보시는 것을 추천</b>드려요! 그러다보면 내 말버릇, 비문이 무엇인지, 더 정돈된 답변을 연습할 수 있어요:)</p> <p>-다른 스터디 선생님들의 답안들을 피드백할 때 좋은 점이나 <b>좋은 키워드는 면접노트에 작성</b>했습니다.</p> <p>-내 답안들을 모두 타이핑 해보면 좋아요. 어디에서 두서 없이 들리는지, 문장이 긴지, 수정하면 다음에는 더 또렷하게 말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p>
<p>-<b>면접 노트 만들기 추천</b> 드려요</p> <p>: 면접 노트에 민생이 주신 자료 내용을 붙이거나 키워드만 작성할때도 있었고, 서론도 정리해본적도 있습니다. 또 내가 고쳐야 할 것을 직접 본인이 쓰고, 스터디 하기전에 봤어요. (예: 문장 짧게 하자. 키워드 드러나게 하자.)</p> <p>-<b>면접 키워드 정리도</b> 했습니다.</p> <p>: 면접도 내용들이 다양합니다. 안전, 학대, 교사가 해야 할 사항, 교사가 한 행동이 잘못된 이유 말하기, 대안책, 4차 산업혁명, 등등.. 이런 것들을 막판에 다 정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정리가</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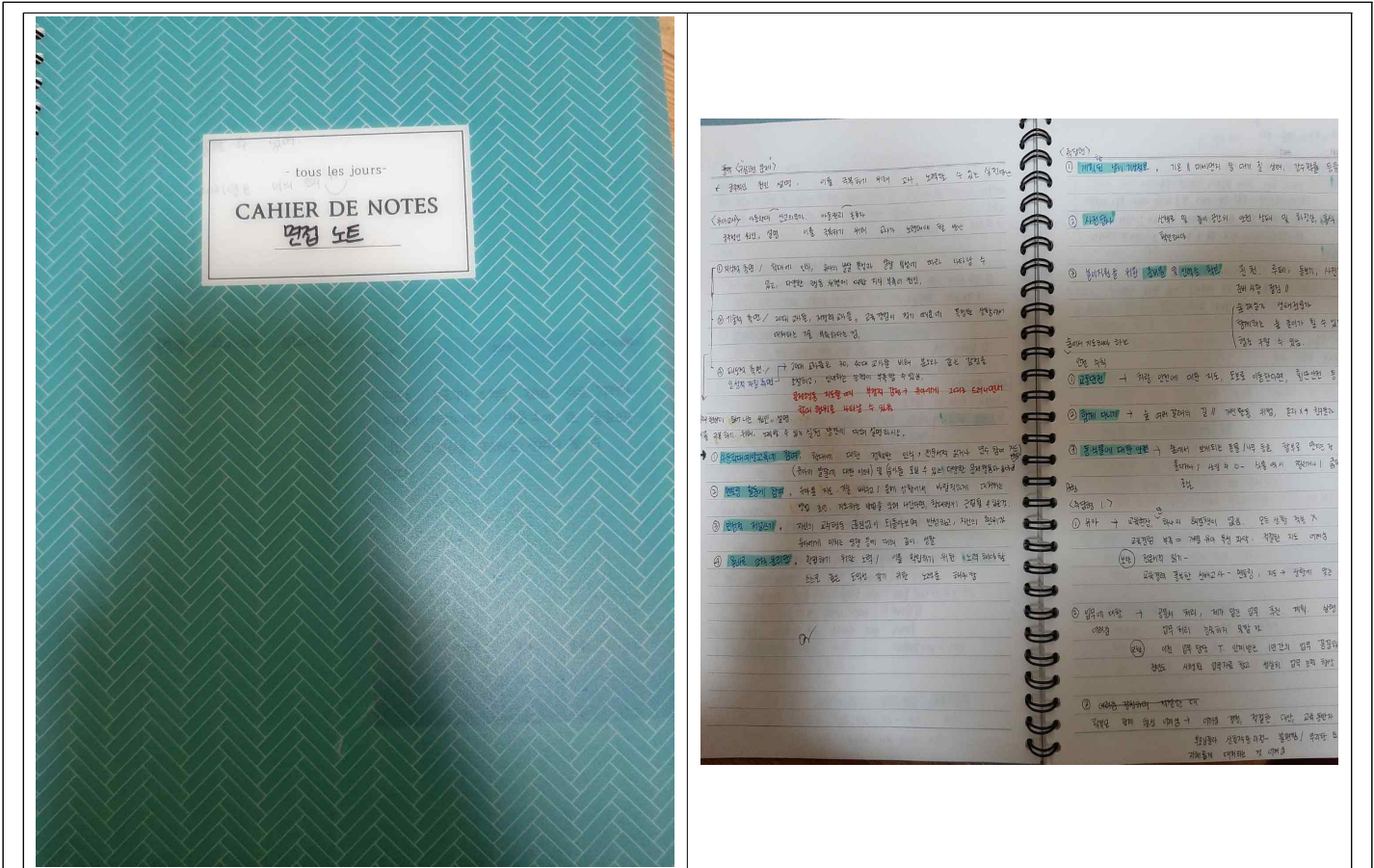
되어서 도움이 되었어요.



주별로 면접 주제를 정하고 답안 내용들을 죽죽죽 정  
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을 자신감도 생겨서 좋았습니다. 또, 정리정돈이 되  
니 답안도 정돈되더라고요~^^

제가 만든 면접노트 사진이에요. 모범 답안 키워드도  
정리하고, 1차 공부하듯 익히려고 했습니다! 아는 것  
이 있어야 말로도 나오더라구요\*\_\*





-전화스터디 추천합니다  
: 아침 기상 용으로 하시길 권합니다~! 저는 사전에 카톡으로 정한 문제들을 카톡으로 올리고, 각자 구상하고 전화해서 시간을 재서 스터디 했어요. 잠도깨고, 스터디도 하다보니 일거 양득이더라구요~!^^

♥ 수업실연 & 과정안 tip ♥

수업 실연	과정안
<p>말 그래도 현장에서 교사로서 보여지는 수업을 평가하는 것입니다.</p> <p>제시된 문제를 보고, 수업 구상을 해야 합니다. = 수업 실연하기전에 어떤 흐름으로 실연을 보일 수 있을지 생각하는 시간이지요.</p> <p>구상 후에는 시험장으로 들어가 제시된 시간만큼 실연하면 됩니다.</p> <p>&gt;평가원-저희 지역(경북)의 경우 구상 15분, 실연 15분 이었습니다.</p> <p>합격/불합격을 가리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는데, 이 때 기준은 '조건'입니다.</p> <p>예) 창의성/사고의수렴/고집피우는 유아가 있다 가정 -&gt;이러한 조건들을 놓치지 않고 교사는 적절한 상호작용과 발문을 통해 시연해야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p> <p>또, 수업은 흐름이 보여야 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교사 혼자서 시연하지만, 눈 앞에 유아가 있듯,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p>	<p>수업실연이 시연하는 것이라면, 과정안은 수업을 적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정안 역시 합불을 가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중요합니다.</p> <p>수업실연의 예시처럼, 그 상호작용 예시를 과정안에는 놓치지 않고 발문/ 유의점을 작성해야 합니다.</p> <p>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전보다 더 짧은 시간에서 연습하시기를 추천합니다.</p>



<p>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당차보이고, 수업에 있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p> <p>*수업실연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p> <p>-동극, 동시, 동화, 자유놀이, 이야기나누기(토의), 과학, 요리, 미술(대집단/소집단/자유놀이), 쌓기/역할, 견학, 화재대피, 지진대피, 등...</p> <p>-&gt; 놀이중심으로 개정되면서 유형이 어떻게 되는가 고민이 많았는데 기본적인 수업 유형은 모두 연습해 보았어요!</p> <p>-&gt;수업실연시 시작(도입)은 항상 유아의 흥미로부터 시작되었고 이를 교사가 지원하고자 함을 도입에 드러나게 했습니다.</p>	
---	--

● **스터디를 많이하는게 능사가 아니다. 개인공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저는 이번에 2차를 할 때는 하루에 1set만 피드백했습니다. 남들은 2set, 3set도 하는데 불안도 했지만, **그냥 1set만 충실히 했습니다.** 그 외 시간은 **오로지 개인 공부**를 했어요. 결국에 시험장에서 들어가는 것은 오로지 '나'고, 많은 사람들의 피드백도 중요하지만 스스로가 알고 고쳐나가야 하는 것 같아서요..! 대신에 주변에 **공립에 계신 선배선생님들이나 친구들에게 피드백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해주는 **피드백 내용을 무조건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개인 공부 때 했던 것들은

☞나만의 수업 만능틀 만들기, 면접노트 정리하기, 내 답안 다시 필사하고 스스로 피드백하기, 지도서 읽기 등.

☞지도서를 꾸준히 봤습니다. 자신 없었던 요리/과학/이야기나누기 등을요. 모든 수업유형을 봤긴 했지만요. 지도서에 나오는 유의점도 꼼꼼히 보니 많이 과정안, 수업실연 모두에 도움이 되었답니다^^

☞수업실연을 한번 피드백 받았다면 다른 방향성으로 혼자 실연하는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구상도 반복하다보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구요~! 또 스터디 선생님의 아이디어도 좋은 점은 정리해서 '내것으로 만들었어요!'( 다른 지역 선생님끼리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수업유형의 방향성은 (아무리 놀이중심이라 한들 기본 요소는 알아야 한다) 꼭 안다.**

- 이번 시험이 놀이 중심으로 바뀌면서 2차의 방향성이 어렵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드러나게하거나, 문제에 제시된 목표와 방향성, 약속정하기, 안전 등은 교사가 제시해야 하는 가장 기본의 것들을 생각하고 수업 유형별로 요소들은 달달 외웠습니다. (예: 동극, 동화내용 회상하기, 역할과 소품 정하기, 약속 정하기 등...) '나만의 만능틀'을 정리했어요. 또..!! 저는 현장경력이 없다보니 기본적인 놀이 아이디어나 내용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놀이사례집도 읽지만 저는 솔직히 지도서를 다 보고 정리했어요. 유의점, 수업의 흐름들을 익히되 놀이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할까?를 초점을 두고 봤답니다~!!

● **수업실연의 경우에는 조.건을 무조건 챙긴다.**

- 2차는 결국에 채점표를 기준으로 채점합니다. 조건은 기본이라고 하죠.. 그래서 평소에 연습할때는 조건을 때려보는식으로 만들어 실연했어요. 시험장 갔을 때도 조건이 많아 당황했지만, 이때 연습한 것들이 나온 것 같아요. 또, 조건이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날까?를 고민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애매하게 충족하기보다는 그냥 대놓고 언급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민쌤의 2차 책을 보면 각 조건들에 맞는 예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예: 창의성의 '다양성' -> 우리 함께 그러면 다양한 생각들을 이야기나누어볼까요? /사고의 수렴->'우리의 생각들을 \*\*이가 우리반 생각나무에 모아보자고 하네요. 등)

● **수업실연의 경우에는 목표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 모든 교사임용에서 기본인거 같아요. 도입에서 수업의 방향을 교사가 언급하는 것, 전개에선 곳곳에서 목표가 성취된 내용들을 기억하고 언급하기, 마무리에서는 수업방향이 충족되었음을 꼭 드러나게 하셔야 해요! 과정안 역시 모

두 같습니다..^^

### ● 과정안 작성

- 저는 과정안에서 많은 점수 깎임이 있어,, 팁을 드리긴 어렵지만. 스터디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 과정안 역시 수업실연의 계획안을 작성한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정해진 조건들을 드러나게 쓰는 것입니다.
- 그러려면 스터디 원들이 피드백 하는 것이 중요해요. 문제 조건이 잘 드러났는지 피드백 할 수 있는 스터디 하시길 권합니다.
- 저는 조건이 1~5가 있다면 모두 각 다른 형광펜으로 칠해서 피드백 드렸습니다.
- 그러다 보면 내것이 어디가 충족이 안되었는지 보이는 것 같습니다~!
- 또 시험시간이 60분이었는데 평소에 50분으로 연습해두어서 시간으로 촉박함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 무엇이든 실전처럼 연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 모범 시연 영상 반복해서 보기

- 말투, 시선 등을 계속 보려 했어요.
- 모범 시연 영상이 있으면 말투가 어떤지, 목소리 성량은 어떻게 해야 자신감 있게 보일지 봤습니다.
- 조건은 어디에서 드러나게 했는지, 좋은 아이디어는 수업실연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 발문 역시 좋은 것은 적어 두었습니다.

### ● 피드백 성심성의껏 드리기

- 저는 스터디 횟수도 적고, 오프라인은 하지 않았어요. 온라인으로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만큼은 퀄리티 높여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함께 스터디 하시는 선생님들의 수업실연 영상을 거의 필사하듯,,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떻게 해야 좀 더 보완될지 자세하게 보고 피드백 드렸던 것 같아요^^ 남의 영상을 주의깊게 보면 그것도 공부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살피시고 스터디에 임하면 좋을 것 같아요.

## 마무리♥

- 자세하게 적다보니 길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시작하신 초수 선생님들은 감사 커리만 충분히 따라가다보면 자신에게 적합한 공부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서 말했듯 모든 사람의 공부방법은 다릅니다. 자신의 성향과 상황을 고려해서 현명한 공부방법을 찾는다면 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 저는 고득점으로 합격하지도 않았고, 또 평소 2차에서 잘한다고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 그럼에도 드리고 싶은 말은 '끝까지 모른다.'라는 점입니다. 저는 1차도 정말 떨어질거라고 확신했었고, 2차를 치고 나왔을 때도 찝찝했고 후회가 가득했어요.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이라면 불확실함이 제일 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담대하고 무엇보다 스스로 자신의 편이 되어주셨으면 해요.
  - 결과가 없으면 소용없다곤 하지만 이미 이 시험을 하기로 결정하셨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나날이 좋은 교사로 성장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보듬어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로 수험생활을 버틸 수 있었어요.

**때로는 누군가가 스치듯 건넨 작은 격려가 따뜻한 위로가 되고 마음 속에 큰 울림으로 남아 좌절감을 극복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 제 작은 합격수기가 선생님들께 작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장황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